숲과 숲 해설

충북대학교 신원섭

우리 시대의 실천적 자연주의자인 스코트는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사는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사고의 오류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가 식료품 가게에서 나오고, 매일 마시는 우유가 우유공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오류는 인간 자신과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매우 충격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고의 오류는 또한 현대의 과학 기술과 물질문명이 자연의 모든 혜택을 대신할 수 있다는 무서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오늘날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고의 오류는 더욱 심각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자연과 직접 접해볼 기회와 시간을 상실하고 있다. 들꽃의 아름다움과 느티나무의 웅장함을 감상하기보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고 화학 주기율표를 외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길 강요당한다. 맨땅을 한번 밟아보는 대신 아스팔트로 포장된 거리와 코크리트 건물 안에서 하루 24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사고의 오류를 가진 현대인의 가치관은 어떠할까?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이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여유조차 있을까? 남의 편리를 위하여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도 믿을 수 있을까?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 까?

자연, 특히 그것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숲은 현대인이 갖는 사고의 오류와 그릇된 가치관을 올바로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인간화의 통로이다. 숲 해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숲 해설의 기원을 Enos Mills라고 한다면, 그가 미국 로키산에서 숲 해설을 하기 시작한 1889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숲의 중요성을 숲 해설이라는 도구를 통해 알리고 있다. 숲 해설을 하는 단체나 개인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숲 해설을 듣는 대상에 따라 숲의 중요함에 대한 내용은 다를 테지만 중요한 것은 '숲 해설은 숲을 알게 하는 것보다, 숲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기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다. 한 인간의 가치와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마치 석가가 보리수 아래서 해탈을 이루고,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본 것은 순간이지만, 이 순간이 끼친 영향은 우리 인류에게 영원히 대단하다.

숲 해설이 알려 주는 숲의 중요성과 혜택이 다향하고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숲 해설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참 인간으로의 회복이다. 달리 표현하면, 숲이 주는 정신적·종교적·심리적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를 느끼게 하여야 한다. 『월든』으로 잘 알려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연의 부분 부분은 지나간 인생이 다른 생을 만들어 주는 여유를 가르쳐 준다'라고 했다. 그는 또 숲 속에서의 생활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

는 진지한 삶을 살기위해 숲으로 간다.'라고 표현하였다.

소로우의 표현대로 숲은 우리의 근본을 긁어 일깨우게 한다. 바로 숲 해설은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숲 해설을 통하여 왜 숲이 보호되고 가꾸어 가야함을 이해시키며, 숲에 관련된 문제와 갈등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숲으로부터의 광범위한 편익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숲에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 등에 관심을 갖게 하고 효율적으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숲 해설의 중요성은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몇 몇 개인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천되어오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숲 해설가 협회란 단체가 창립되고 지방자치단체와 몇 몇의 기관에서도 숲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연하고 있어 숲 해설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또한 관련 기관인 산림청에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숲 해설을 자연 휴양림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숲 해설 활동이 진정한 회복의 계기로 정착되어 꾸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기를 바란다.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일반 시민이 숲을 알면 알수록 숲의 중요성을 느끼고 또 숲을 가꾸는 사람들의 노고를 이해하며 감사할 수 있다. 숲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숲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은 무감각에 빠져있다. 마치 우리가 물과 공기를 무감각하게 소비하듯이 숲도 자연히 우리 곁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의 숲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들었는지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오히려 숲에 대한 가장 큰 국민적 오해는 숲에 손을 떼는 것이 숲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숲 해설은 자그마한 사회의 물결로 시작되었지만 이 물결이 파도를 이루어 앞에서 말한 숲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저기서 숲 해설에 관심을 가지고 숲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이 활기차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숲 해설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다. 그저 남는 시간에 자기의 짓ㄱ을 동원해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숲을 사랑하는 실천가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다. 다시 표현하면 숲의 전도사인 것이다. 따라서 숲 해설가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가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검증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숲 프로그램은 더 나은 방문객 관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사실 자연 휴양림에 해설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집에 사람을 초대해 놓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비유될 수 있다. 방문객에게 그 지역을 안내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려주며 그럼으로써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일은 어떠한 방문객 관리보다도 더 교육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일반 대중이 자연 보존 지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그 지역을 방문하여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 지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는 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일반 대중을 교육하는 일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항상 명

심하여야 한다. 이는 방문객 또는 일반 대중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방문객은 항상 환영받는 느낌을 받아야 하며 정보 제공과 환경 해설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리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정보의 제공과 차원이 다르다. 환경의 해설에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 그리고 자연 현상과의 관계들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숲과 환경 해설은 자연 휴양림의 목적과 정책에 대해 일반의 인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숲과 환경 해설은 자연 환경을 잘 감상하고 그 지역 또는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방문객에게 방문지의 자연환경에 대해 호기심과 경외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제공하여야 하며 집에 돌아가서도 그 여운을 계속 간직하게 하고 실천으로 숲과 자연을 사랑하게 만드는 숲 해설가는 앞에서 표현하듯이 숲의 전도사이다.

숲이란 무엇인가?

그럼 숲 해설가가 알려야 하는 숲이란 과연 무엇일까? 또 숲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비록 이 질문이 간단하지만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또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성이 강한 숲의 보존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숲=목재생산'이란 개념이 팽배했었다. 박봉우(1992) 교수에 의하면 이런 생각은 16세기경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목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한 목재의 부족을 느끼면서 숲 경영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개념이 다 그러하듯 숲의 개념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진화하였다. 또한 최근의 환경보족운동과 더불어 숲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목재생산 외)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설명과 왜 우리가 숲에 그러한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설명이 미흡하다. '숲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깊은 통찰력과 논리 정연한 주장,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제시되어야만 하고 그래야 만이 왜 우리 인류가 숲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숲이 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숲의 휴양가치

휴양의 가치는 숲이 갖는 목재생산의 가치와 함께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점점 도시화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인류가 전통적으로 누려온 '인간-자연'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었다. 과거, 자연과의 접촉은 인류의 생에 있어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매일같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의 우리는 문명과 복잡한 도시생활의 장벽으로 자연과의 접촉이 심각히 단철되어 있다. 이러한 현대의 생활은 극심한 생의 불균형 상태이며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많은 도시인들은 숲을 찾는다.

물론 숲이 갖는 휴양의 가치에 대한 역사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이겠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 숲 휴양이 인식되게 된 계기는 아마도 1855년에 미국의 제임스 허칭스가 관광단을 모집하여 요세미티 계곡을 관광한 것이라 할 것이다(박봉우,1992). 이를 시작으로 하여 일반

대중이 숲을 현저히 이용하게 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되어 국립공원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미국에서는 Yellowstone 공원이 세계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립공원 개념이 도입되어 1967년에 지리산이 국내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 20여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의 수입증대, 교통시설의 발전, 그리고 여가시간의 확대 등의 요소가 이러한 숲의 휴양 기회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켰고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수요의 사회적 요망에 따라 국립공원과는 별도로 1988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자연 휴양림 조성이 주요시책으로 책정되어 추진된 이후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이상의 휴양림이 조성되었다. 자연 휴양림의 이용자 또한 매년 현저히 증가하여 현재 약 400만명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숲을 휴양의 장소로 택하고 찾는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숲으로부터 얻는 효용(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많은 수의 숲 이용자들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들임에 틀림없다. 실증적인 연구들은 이러한 효용이 대부분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것들이라고 보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숲 휴양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휴양객의 수처럼 쉽게 측정되지 못하다.

(2) 숲의 문화적 가치

자연은 흔한 문학예술의 소재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 정서나 문화속의 숲·나무의 역할은 특별하다. 비록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는 않지만 '산림 문학'이라는 한 장르가 우리문학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보더라도 숲이 우리 문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문학이 시대의 산물이며 그 시대정신을 반영 한다'(이정석,1990)고 한다면 산림 문학이야말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숲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척도일 것이다. 산림 문학이란, 이정탁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산과 들이나 농촌에 숨어서 글 짓고 책 읽는 것으로 낙을 삼는 선비의 무리에 의하여 제작된 문예를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이들 문예의 주제는 대부분 자연, 특히 산과 나무였다. 숲이 우리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음은 전영우(1992) 교수의 우리나라 한시의 비교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은데 그에 의하면 전체 조사한 한시의 약 20% 정도가 그 내용 중 나무와 숲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 중에도 버드나무, 소나무, 복사(꽃), 대(숲), 오동나무, 단풍나무, 살구(꽃) 등이 어느 수종보다도 자주 언급된 수종이었다고 하였다.

서양, 특히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어서는 숲이 그들의 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역사학자 Nash(1972)는 '미국 문화의 특질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광활한 원시림이 그것을 다른 민족의 문화와 구별 짓는다.'라고 하였다. 이 원시림은 그들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그들이 처음 미 대륙에 닻을 내렸을 때 울창하고 무시무시한 원시림의 천지였으며 이 원시림은 초기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부담을 안겨 주었다. 울창한 숲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도시를 만드는데 큰 장애물이었고 서부로 향한 그들의 개척에 많은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때때로 숲에서 인디언의 습격으로 숲은 그들에게 전장이었고 이러한 경험이 숲을 하나의 훌륭한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만들었을 것이다.

(3) 숲의 정신적·종교적 가치

숲은 인간에게 신의 위대함과 상대적으로 인간 자신의 왜소함을 깨닫게 하여 주는 원초적인 사원이며 성당이요 교회이다. 숲에서 인간은 그 자연의 웅대함에 감탄하며 신의 가장 순결한 창조물인 숲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간인 자신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지를 숙고하는 사색가요 종교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숲의 종교적 가치는 초절주의자인 H. D. Thoreau와 R. W. Emerson의 사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숲을 인간존재의 깊은 문제에 있어 해결의 장으로 인생과 사물의 깊숙한 창조력의 발로로써, 또한 이들 모두의 결속에 대한 이해의 장으로써 보고 있다는 것이다.

초절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숲은 신의 가장 순결한 창조물이다. Emerson의 말을 빌리자면 '자연은 영혼의 상징'이라 하였고 Thoreau는 '신을 잘 알고 신성한 계시를 잘 이해하려면 자연을 가까이 하라'고 한다. 구약성서에 나타나 있는 숲의 의미를 살펴보면 '숲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행위의 회개의 상징이며 죄를 거부하는 행위였다. 숲은 또한 신이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장소로도 표현되어 있다. 오늘날 숲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숲은 우리에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며 숲의 순수함은 우리 안에 있는 순결함을 고양시킨다.

토속신앙의 견지에서 본 숲은 신령의 주거지요 신앙의 모체이다. 영험한 산에 존재하는 산신령은 숭배의 주체였고 숲의 거목 괴목 등은 신령의 변신으로 혹은 신령과의 매체로서 다루어져 왔다. 영험하다 이르는 숲의 곳곳마다, 산의 계곡 계곡마다 토속 무속신앙의 숭배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4) 숲의 과학 연구적 가치

숲의 과학·연구적 가치란 숲의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의 대상임을 말한다. 숲이 과학적인 가치로 중요한 것은 Aldo Leopold(1941)의 말처럼 '숲은 하나의 커다란 자연의 실험실'이기 때문이다. 즉, 숲은 비교적 인공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고 자연의 힘에 의한 천이가 이뤄지는 순수상태의 유전자군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이다. 숲은 또한 갖가지 정보의 보관소이다. 그곳에는 각종의 유전자 정보와 온갖 희귀한 동식물이 집합해 있다. 숲 내에는 과거를 추적할 수 있는 흔적과 역사적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숲 내의 한 수종이 가진 연륜은 그 개체가 어떤 상태로 커 왔는지를 알려주고, 한 식물군의 존재과정 예를 들면 사망률 및 그 패턴을 알려준다. 지형적·지질적 정보도 숲은 가지고 있다. 숲 이외의 지역은 변형되지 않고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 상태의 지형(즉, 과학적 측면에서 더 가치가 있는 지형)을 거의 보존하고 있지 못하다.

숲의 과학적 가치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숲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연구 분야도 임학, 식물학, 생태학, 동물학, 지리학, 병리학, 지질학 등 광범위하기 이를 데 없다. 숲은 환경문제의 척도를 담당하기도 한다. 산성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연 및 공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등의 연구는 이런 것들에 민감히 반응하는 숲을 관찰함으로써

조사가 가능하다. 숲은 또한 그 자연성이 비교적 보존되었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 있어서 통제지 혹은 비교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

(5)숲의 교육적 가치

숲의 교육적 가치는 대부분 숲의 직접적 이용자들 예를 들면 휴양 이용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숲 내에서의 야영 및 하이킹을 통하여 얻어지는 야외생활의 기술의 습득이라든지, 자연과의 접촉에서 얻어지는 동·식물의 구별 요령, 환경 및 생태학에 관여된 지식의 습득 등이 숲의 교육적 가치에 속한다. 이러한 숲의 교육적 가치는 숲 휴양객의 휴양 동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서 대부분의 숲 휴양객에 대한 연구들은 '자연에 대한 탐구 및 학습'이 휴양객의 빈번한 숲 방문 동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숲의 간접 이용자들(즉' 책이나 그림 혹은 T. V.등의 매체를 통하여) 또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지식은 자연보호운동의 참여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6) 숲의 심리적 가치

숲과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산은,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험준하지만 아름답다. 이 장엄한 아름다움은 곧잘 회화나 시의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숲의 이 같은 아름다움은 인간의 역사에 근원을 두지 않는 아름다움이며, 이것은 늘 변하는 아름다움이다. 숲의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감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며 이 아름다움은 어느 인공적인 예술작품도 모방할 수 없는 최상의 자연미와 순수미를 갖는다.

음악이 우리의 영혼을 고결하게 하고 생의 질을 높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숲의 아름다움도 우리 생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숲의 심미적 가치 역시 숲 휴양객을 유인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숲 휴양에 관한 연구들은 휴양객의 숲 방문 동기 중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일치한다.

(7) 숲의 심리적 가치

숲의 심리적 가치란 숲의 이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익 즉, 자아실현 수준의 증가, 자아의식 수준의 증가, 자신감과 자존감의 증가, 스트레스의 해소 등을 말하며 이런 것들은 주로 숲 휴양에서 파급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숲을 찾음으로 얻는 심리적 이익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얻어 지는가? 또 어떻게 숲과의 교감으로 심리적인 성격들이 형성되는가? 각 개인이 숲을 찾음으로써 얻는 심리적 이익이 그의 일생 동안의 삶에 얼마만큼 유용한가? 이와 같은 의문들이 최근 많은 심리학자나 사회임학자들에 의해 흥미를 끌고 있다. 하지만 숲과 인간의 심리적 복리에 관한 관심은 벌써 1851년 Thoreau란 미국 사상가에 의해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Thoreau는 직접 숲에 은거하면서 숲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자극제임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숲이 가진 '원시성' 이 사람들이 묶인 사소한

일상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며, 생의 근본 목적을 좀더 잘 이해하도록 하여 준다"(Thoreau,1851)고 역설하였다.

"내가 숲을 찾은 이유는 생을 좀 더 현명히 살기 위함이고 생의 본질적인 진실과 만나기 위함이고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발견치 못한 것들을 찾으려 함이다"(Thoreau,1851).

Aldo Leopold 역시 숲이 주는 심리적 기능을 인식한 선각자 중의 하나였다. 그는 그가 남긴 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숲에서 체험한 깊은 정신적 만족을 역설하고 특히 'A Sand County Almanac'이란 책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보호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또한 'Land Ethics'란 사상을 통하여 자연 역시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훼손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숲의 심리적, 정신적 가치를 말하면서 "숲은 인생의 의미와 정의를 가져다주므로 보호되어야 한다."(Leopold,1964)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구미, 특히 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숲의 이러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런 실증적 연구들은 여러 형태의 숲의 이용으로 얻어지는 심리적 결과에 대하여 다각적인 시각과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숲 이용객에 대하여 설문 또는 심리검사를 통하여 어떤 종류의 심리적 이익을 얻었는가? 숲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자아의식, 자아실현, 지도력, 자신감, 협동심, 타인에 대한 신뢰감 등의 심리적 특성 등이 증가되었는가? 개인적인 특성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숲의 환경 상태 등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기울여 왔고 요즘에는 왜 이러한 변화들이 숲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이러나는가? 또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우리 현실 생활에 응용할 것인가? 하는 원인 규명 및 이용문제로 관심이 이동되어 가고 있다. 과거의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숲의 이용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이런 변화를 수량화 또는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숲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안 및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일까? 왜 숲에서는 인위적 환경에서 보다 심리적 효용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숲이 주는 어떤 '자극(stimuli)'이 우리 인간에게 심리적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 '자극'은 도시에서 느끼는 것과는 반대의 것으로 인적이 없고, 소음과 변화가 거의 없음을 특징으로 한다. 숲이 주는 '자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깊은 숲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코끝을 스치는 상큼한 바람과 거기에 실려 있는 석양, 야생동물의 노래 소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닫혀있고 세속에 찌들려 있던 마음을 활짝 펴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극'은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협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도시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다(Lazarus,1966). 이런 숲의 자극은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대응행동(coping behavior)'을 유발시킨다. 그리하여 숲은 그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방향의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대응'이란 어떠한 위협에 대처하는 심리적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Murphy (1962)라는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어린애를 관할하면 우리

가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하는가를 알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상황에 자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때, 또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경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엔 어떤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Murphy,1962).

우리는 숲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는 어떠한 제약도 느끼지 않거나 혹은 그 느끼는 정도가 미미하다. 숲에서는 상사의 꾸지람도, 어떤 업무의 마감일도, 또 무엇을 독촉하는 전화도, 세상의 온갖 어지러운 소식을 전하는 신문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숲에서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오는 지루함과 근심을 잊고 해방감을 만끽한다. 고로 숲의 심리적 가치는 현대의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이다.

(8) 숲의 치유적 가치

숲의 치유적 가치란 숲이 질병 혹은 정신적 건강의 이상을 치료하기위해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과는 연관이 없더라도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쓰여지는 가치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가가 그 병을 치료키 위해 매일 숲을 산책한다면 당연히 그 환자는 숲을 치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아무런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숲을 산책한다면 이것 역시도 넓은 의미로 숲을 치유의 목적에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숲의 치유 가치에 대하여는 일찍이 1904년 Evans에 의해서도 이야기 되어졌다. 그는 숲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당신의 피는 맑아지며, 두뇌는 활발히 움직일 것이다. 당신의 생은 새롭게 펼쳐지고 당신은 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추려내는 능력을 얻는다. 판단력은 예리해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청력은 높아진다."

숲의 치유적 가치는 숲의 심리적 가치화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이는 숲을 현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구로 보고 그로부터 정신적 심리적 혹은 육체적 안위를 얻는다는데 주장을 같이한다.

숲의 질병치유 효과가 처음 보고된 것은 아마도 1900년대 초 미국 뉴욕시의 한 병원일 것이다. 당시 그 병원에는 입원 환자가 너무 많아 병실이 모자랐다. 병원 측은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환자들을 따로 분리해 야영을 시키며 치료를 하였는데 그 치유율이 상당히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이러한 숲의 치유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숲의 이용 형태는 주로 집단 야영이나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진 프로그램에 의한다. 이러한 야영이나 프로그램에 의한 치유효과로는 정신병의 치료, 이상행동의 교정, 사회성의 증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 소년범의 재범율 저하, 신체의 균형 조절, 신경 우울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몇몇의 연구는 숲의 이용이 학력의 증진 및 학교와 교사에 대한 호의적 자세 증진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숲의 치유효과를 의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거론되는 것이 '피톤치드의 효과' 이다. 이것은 레닌그라드 대학의 토킹 박사가 발견하였는데 이는 수목 내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 란 물질이 인간에게 해로운 균의 살균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 피톤치드의 장점은 개개의 수목이 그 특성에 따라 살균의 범위를 선택하고 인간의 몸에 무리 없이 흡수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목의 향기와 수액에 포함된 테르펜계 물질의 약효가 숲의 치유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며 이는 주로 피부 자극제, 소염제, 소독제, 완화제로 쓰인다고 한다(신만재,1990).

(9) 숲의 경제적 가치

어떻게 보면 숲의 경제적 가치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의 가치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치들은 비록 그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측정된 가치는 다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숲 휴양에 있어서 휴양객은 숲 휴양활동을 위해 비용을 소모하며 그 비용들은 휴양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여행에 필요한 교통경비, 입장료 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요된 실제 비용은 측정될 수 있는 최소의 가치이며 이런 가치의 측정은 곧바로 산출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이런 휴양활동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라는 여분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곧 이 가치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해서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그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숲 휴양의 관점에서 말해 본다면 한 휴양객이 숲 휴양활동을 위해 50만원을 소비할 각오가 있다면 그 휴양객이 숲 휴양활동에서 얻는 가치 즉, 이익은 최소 50만원이라는 말이다. 고로 실제 휴양활동에 그가 30만원을 썼다면 나머지 20만원은 소비자 잉여가 된다. 이러한 경제적 개념은 숲 휴양의 가치측정 분야에 도입되어 주요한 가치산출방법이 되어있고 여기서 창출된 가치는 국가 혹은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떤 가치들은 화폐가치로의 환산이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숲의 맑은 공기와 물 혹은 기온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가치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숲의 치유적, 심리적, 심미적 혹은 종교적 가치도 화폐가치로 환산이 어렵다. 숲의 경제적 가치는 '개발과 보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숲의 가치들이 경제 가치로 환산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종종 가치가 없다고 오해되어 왔었다. 숲을 보존함으로 우리는 다음세대에 좀 더 현병한 이용을 위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그 선택권을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체계화 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 연구는 콜로라도에서 숲을 보존하는데 한 가족이 년 간 $14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조사보고를 발표하였고 만일 이 숲이 다음 세대까지의 보존이 확실시 된다면 연간 $33까지의 지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보존의 선택권이 경제적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10) 숲 그 자체의 가치

지금까지 살펴본 가치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숲이 주는 가치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논의하

고자 하는 숲의 가치는 그와는 반대로 숲 그 자체가 얻을 수 있는 가치이다. 즉, 숲이 포함하는 개체(수목, 관목, 곤충, 야생동물 등)가 숲의 보존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가르친다. 이러한 가치는 윤리적·도덕적 측면과 고나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Aldo Leopold는 '토지윤리(Land ethics)'라는 사상을 통하여 인간은 이 넓은 지구라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구성원일 따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윤리는 어떤 하나의 전제하에 진화된다고 하였고 '토지윤리'란 단순히 그 적용 범위를 인간에게 좀 더 포괄적인 공동체(즉, 인간, 토양, 물, 식물, 동물이 포함된 토지)로 넓힌 것이라 하였다. 'Deep Ecology'란 사상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모든 생물은 존재할 권리를 갖고 인간은 그것을 파괴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Deep Ecology는 다른 생물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가치 체계를 철저히 부인한다. 대신 모든 생물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들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 존귀를 존중하는 동양의 종교 철학, 특히 불교나 유교의 근본사상과 일치하며, 땅을 '어머니'로 여기는 인디언의 자연 존중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연의 생존 권리에 대한 주장들은 환경 보존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런 사상의 전개는 자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전통적인 인간본위에서 자연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숲의 그 자체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겐 숲의 보호는 자연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의무로 표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숲이 지니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이런 가치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나 문헌들의 분석을 통한 분류이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짙다. 또한 숲은 이외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거나 체계화되지 못한 가치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숲의 가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실질적이고 실체적이며 어떤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치들이 우리에게 '숲이 왜 필요한가?'에 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면 한다. 아직도 숲의 가치 분야에는 축적된 지식이 제한돼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숲의 가치에 관한 연구는 '가치'란 개념의 모호성과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수행하기가 수월치는 않다. 또한 전통적인 '개발=발전=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식이 숲의 보존에 관한 가치를 위협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제한된 지식이라도 이것들이 여러 측면에 주는 도움은 상당히 크다. 우선, 이러한 가치의 지식은 '숲의 보존'을 주장하는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근거이고, 둘째, 숲 경연 관리에 있어서 자원의 분배 및 경영 선택의 합리성을 갖게 하여 주며, 셋째, 임업에 관여된 전문가들의 전문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넷째, 일반 대중이 합리적인 숲의 이용과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한번 파괴된 숲을 복구하는 대에는 수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현명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본다. 숲을 가꾸고 지킬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이다. 우리의 후대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푸르고 울창한 숲을 대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은 없을 것이다.